

내년 중1 영어·수학 교과서 어떻게 바뀌나

보조교재 상·중·하 나눠 '수준별 학습'

2006년 정부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 교과서가 바뀐다. 1~7차 교육과정 이후 수시 개정 체제로 접어들면서 내년에는 영어·수학이, 2010년에는 나머지 과목의 교육과정이 바뀌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과서 외에 챙겨야

할 보조교재가 하나 더 생겼다는 점. 보조교재는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세 단계로 나뉜 문제풀이와 설명을 곁들였다. 현직 중학교 교사들로부터 내년부터 바뀌는 중학교 1학년 영어·수학 교과서의 특징과 이에 따른 학습법을 들어본다.

◇영어

영어 과목의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개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휘나 문장,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수준별로 구성된 점이 달라진 점이다.

특히 보조교재인 워크북(학습활동책)은 상·중·하 세 단계로 나뉘어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복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나온 회화 문장을 워크북에서 자연스럽게 반복할 수 있게 했다.

수준별 워크북의 장점은 매 단원을 끝낸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연습문제를 풀이해 다음, 상위 수준에도 도전할 수 있게 도전의식을 주는 점이다. 자기 수준에 맞는 연습을 마쳤을 때 얻는 성취감은 보너스다. 진 단도 스스로 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아무리 영어에 약하더라도 기본과정을 반복하면서 누구나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포기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교과서가 문법을 설명하는데 각 단원마다 최소 2~3쪽을 할애했다면, 이번 개정 교과서에는 따로 문법만 떼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회화 속에 등장하

영어 읽고·쓰고·말하고 듣는 과정서 문법 공부 수학 혼자서도 예·복습 가능케 연습문제 실어

는 문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녹아있는 문법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문법시간을 딱딱하게 여기고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문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친숙한 주제로 친밀감을 더 한다.

어휘는 초등학교 3~6학년 때 새롭게 배운 500여 단어에 더해 중학교 1학년에서는 170개 가량의 새 단어를 접하게 된다. 고교 1학년까지 어휘 수가 점점 늘어 총 1천700여 낱말을 숙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개정된다.

수준별 학습이 이번 개정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교사 한 명이 수십명의 아이들 각각 수준에 맞게 교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 개의 다른 수준의 학습지를 교사 한 명이 가르치는 것과 같다. 보조교사를 투입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학

수학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별도교재 하나가 더 생겼다. 익힘책으로 불리는 수학 보조교재 역시 세 단계로 나뉜 난이도의 연습문제를 실어 학생들이 수준별로 예습·복습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과정 상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다.

중학교 수학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 등 5개 영역을 다루게 된다.

이는 고등학교 수학과 같지만, 중학교의 경우,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집합, 정수, 유리수, 실수의 개념과 사칙계산, 근사값을, '문자와 식'에서는 다항식의 개념, 일차방정식과 일차부등식, 연립 일차방정식과 연립 일차부등식, 이차방정식의 풀이와 활용을 다룬다.

또 '함수' 영역에서는 함수 개념, 일차함수의 개념과 활용, 이차함수의

개념을,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도수분포에 대한 이해와 활용, 확률의 기본 성질, 대표값과 산포도를, '기하' 영역에서는 기본 도형의 성질에 대한 이해와 증명,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비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이 실려 있다.

새 맞춤법이나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쓰여 왔던 기존의 기호 등을 정비하고 몇 가지 과정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동한다. 예를 들어 함수의 정비례와 반비례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으로,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각각 옮긴다.

개정교과서 활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익힘책이다. 문제집 형식의 익힘책은 문제마다 본 교과서 단원과 페이지가 적혀 있어 각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익힘책의 설명은 기존의 참고서보다 더 자세히 되어 학생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한 것이 장점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표방하는 정부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도움말=영어 정미선 품임중교사·수학 남원기 동명중교사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본격 입시철 '수시 면접'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면접 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입시철을 예고했다. 조선대 수시2-1 전형 면접이 진행된 1일 체육대학 태권도학과에서 수험생이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재외동포 교육·문화·경제 교류 집중 조명

전남대 한상문화연구원 '세계 한인의 날' 세미나

취업 문제 등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모색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단장 임채완)은 1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외교통상부, 한국세계지역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세계 한인의 날(10월5일)'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재외동포와 모국 간 상호 교류 협력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한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5개국의 재외동포 문제를 중심으로 모국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재외동포 정책을 개발·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

각 국 디아스포라 연구 전문가 및 활동가 50여명이 참여해 초국가주의와 네트워크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교육·문화 및 경제교류 강화방안 등을 살폈으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취업문제 등을 분석,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전망했다.

세미나는 김덕룡 대통령실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다문화시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재외동포의 역사인식과 교육·문화교류 방안, 재외동포 경제활동과 교류증진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뉜 여섯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별 발제자로 한미연합회 황스 김(한국의 세계화와 재외한인들의 역할),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김영웅 박사(러시아 고려인의 한국역사 인식과 한·러 교육문화 교류 방안), 경기대 김덕중 교수(중앙아시아 고려사람들의 한국취업 지원방안 연구), 고려대 윤인진 교수(북미한인 차세대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취: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비교) 등이 나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정성필기자 camus@



만 3세미만 장애 영아 2010년부터 무상 교육

전남도교육청, 특수교육에 1,240억 투입

오는 2010년부터 전남도내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들에게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1천2백4십여억원이 투입돼, 장애아에 대한 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지난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제2차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2003~2007년)'이 종료됨에 따라 8월말 발표된 정부의 5개년 계획을 기초로 특수 전문가, 교원, 학부모, 행정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전남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의 기여'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통합 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그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3세 미만의 영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초·중·고의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도서 대출 서비스도 받게 된다.

또한 '통합교육 내실화'를 통해 특

수학급 증설, 순회교사 배치 확대, 중부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 확대, 장애인 편의 시설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뤄지면 2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상담,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종합적 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를 목표로 5년동안 착실한 계획추진이 이뤄지면 장애학생 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대, 新에너지 인력 키운다

신재생에너지공학과 신설 태양광·LED조명 분야 양성

새 정부가 추진 중인 '5+2 경제권 사업'의 소규모 사업(5조5천억원)으로 광주시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포함된 것과 관련, 광주대가 신재생에너지공학과를 신설해 학생 모집에 들어간다.

광주대 공과대학 내에 개설되는 신재생에너지공학과는 태양광에너지와 차세대LED조명 등 분야의

인재를 집중 양성하게 된다.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될 신재생에너지공학과 학생 모집은 오는 7~16일 실시하는 수시 2-2모집 전형(12명)과 12월19~24일 정시모집 전형(8명)으로 나눠 진행한다.

21세기 그린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와 차세대LED조명은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및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분야다. 앞으로 5~10년 후 우리나라를 이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김정근 학과장은 "태양광에너지와 차세대LED조명을 특성화해 21세기 그린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Mu-an Airport Direct Flight Charter) featuring a yellow and green background. It lists flight details for routes to Busan, Jeju, and Jeonju, including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광주MBC 문화방송' (Gwangju MBC Culture Broadcasting).